



오전 11시

교회소식

찬양*

한울림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샤마임찬양대

김원재목사

다같이

설교자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 곁에 설 때까지

깊어진 삶을 주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인도

봉헌*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 633)

말씀교독

사도행전 9:19b-31

특별찬양

“곧 오소서 임마누엘”

말씀선포

“사람들 VS 제자들”

찬양과결단*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105)

축도*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대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오늘부터 대림절(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3.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친교실에서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4. 2021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본인용과 전도용을 가져가셔서 전도용은 전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큐티책 12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입하셔서 큐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김지경)

6. 2021년 주소록 제작을 위해서,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양명철)

7. Covid-19 감염으로 인해 계속해서 주일예배를 현장예배와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배당 입장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연락되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문의-양명철 718-772-5290)

8.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9.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며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에 무엇을 기다리는가

오늘부터 교회력이 시작되는 절기인 대림절 혹은 대강절입니다. 미국의 학교 새학년이 9월에 시작하고 새해는 1월에 시작하듯이, 교회력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4주 동안 있는 절기인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이 교회력이 시작하는 첫 주일이 됩니다.

대림절을 많은 교회에서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영어로 "Advent"라고 하는데 coming이란 뜻으로 라틴어 'Adventus'에서 온 말입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어감상 대강보다는 대림이 좋아서 우리 한울림교회에서는 "대림절"을 사용합니다.

이 절기는 교회력상으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의미, 즉 'the First Advent'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the Second Advent'가 더 와닿습니다. 초기 신약 교회 성도들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도, 기다림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감사헌금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예배당건축에 더 이상의 용자를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는 이때에 차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재정의 넉넉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한울림교회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울림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보다더 주님의 평강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1,426,746